

사회

남구 의료폐기물 소각장 허가 말성

양과동 주민들 “설명회도 없이 일방강행” 반발 ‘그린벨트내 설치 심사강화’ 법 개정 이틀전 신청 남구·영산강환경청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두고 주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미흡한 의견수렴 과정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2일 광주시 남구에 따르면 의료 폐기물을 수거·소각하는 시설(연면적 1127㎡)을 개발제한구역인 남구 양과동 일대에 짓는 건축허가가 지난 2009년 11월께 이뤄진 뒤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다.

이 시설물에서는 하루 최대 24t 가량의 의료폐기물이 소각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과동 주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150여명은 전날 오후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료 폐기물 소각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과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남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각각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남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해당 시설물이 주민공청회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데다가 현행법상 건축허가와 사업승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만큼 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두 기관은 같은 이유로 허가 및 승인 이전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실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도로 자체만으로도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생략한 남구 등의 태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내 일반 의료폐기물 소각시설들이 들어서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비춰볼 때 해당 시설물에 대한 허가나 승인 이전에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하지 않은 두 기관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제의 양과동 소각시설의 경우 지난 2009년 8월 개정된 법률 적용 이틀을 남겨두

고 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행조(68)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법적 요건만 따져 허가와 승인을 내준 두 기관의 무책임함에 화가 난다”며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된 의료폐기물 소각 시설 설치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 관계자는 “건축허가 당시만 하더라도 법률 개정 이전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인 해당 장소에 폐기물 소각시설이 들어서는 데 지장이 없었고, 공청회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역시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별도의 환경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사전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12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시설에서는 하루 최대 24t의 의료폐기물이 소각될 예정이어서 인근 주민들이 건강에 해를 끼칠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함바비리’ 이길범 전 해경청장 법정구속

서울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살범식 부장판사)는 12일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 사건에 연루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여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성실하고 정직하게 공무를 수행했고 대통령 표창까지 받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공적자이지만 해양경찰청장 자리에는 누구보다 청렴성과 도덕성이 강조되는 자리라”고 밝혔다.

이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인사 대상자와 (함바 브로커) 유상봉 등으로

부터 수수한 전체 금액이 3300만원에 이르는 등 엄청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상봉(65)씨로부터 여수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게 강령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준다는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청장은 앞서 2009년 12월 당시 경찰청 경비과장이었던 강씨가 ‘내년 초에 있을 총경급 인사에서 여수해양경찰서장으로 보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전년 5000만원을 받은 등 2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고스톱 공무원’ 산하기관·면사무소로 좌천

나주시, 문책성 인사

나주시가 최근 고스톱 도박관을 벌이던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5명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했다.

나주시는 1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스톱 도박관에 연루된 본청 A국장 을 시 산하 기관으로, B과장과 C계장 등 4명은 본청에서 면사무소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시는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국장급을 비롯한 책임이 있는 부서의

중견간부들이 도박을 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공직자의 도리를 저버린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밝혔다.

A국장 등은 지난 7일 나주 모 음식점에서 판돈 40여만 원을 놓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 읍주운전으로 적발된 5급 승진대상자인 D씨에 대해서도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1000억대 불법대출 전 보해저축銀 대표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효경)는 12일 1000억원대 불법·부실대출을 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박종환(57)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자신이 행장을 맡은 2008년 9월 말부터 이듬해 11월까지 금융브로커이자 삼화저축은행 대주주인 이철수(52·수배)씨에게 980억원 등 5명에게 1470억여 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을 대출하면서 받은 담보는

110억여원 상당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대표는 전임인 오문철(구속 기소) 대표와 협의해 삼화저축은행이나 한국캐피탈 등을 인수하기로 하고 이씨에게 처명을 내세운 우회 대출이나 무단보 대출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8년 6월 말 현재 자기자본(355억여원)의 20%인 71억여원이 넘는 액수를 이씨에게 수십차례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

도심 공원서 강도 행각

40대 2명 붙잡아 조사

광주남부경찰은 12일 도심 공원에 서 시민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려 한 최모(46)씨 등 2명을 특수강도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 29일 오후 6시10분께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공원 앞 주차장에서 임모(46)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앉아있던 임씨에게 “돈을 내 놓아라”고 요구했으나 임씨가 거절하자 “손가락에 건 금반지라도 내 놓아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70대 노인 발 헛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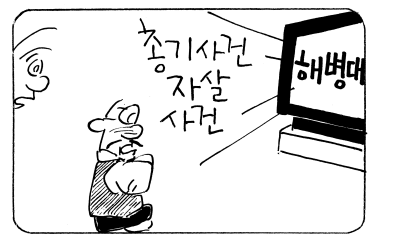
농수로 빠져 실족사

폭우가 쏟아진 익산에서 70대 농부가 침수된 자신의 눈을 보러 나갔다가 농수로에 빠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1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금강동 강경마을 앞 농수로에 이 마을에 사는 양모(76)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45)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고 눈을 보러 나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양씨가 발을 헛디터 농수로에 빠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나원침 (8356) 김종두



500% 살인이자

불법 사금융업자 등 검거

경찰이 고리사채 등 불법사금융업자 3800여명을 최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간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해 대대적으로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3879명(2167건)을 검거하고 그 중 34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대부업 행위가 3천111명(80%)으로 가장 많았고 유사수신 473명(12%), 단단계 행위 295명(8%) 등으로 집계됐다. 사례별로는 서민을 상대로 자금을 빌려주고 최고 연 498.2%의 이자를 받아내거나, 노인 등을 대상으로 혼합음료를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광고해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대출을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취득한 경우 등이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업무 공조를 통해 단속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고 자평하면서 “금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업체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오죽했으면...

우산동 주민센터, 쓰레기 불법투기 막기 어린이가 지켜보는 모습 담은 플래카드

광주의 한 동 주민센터가 곳곳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뿌리뽑기 위해 이색적인 방법을 동원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2일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주민센터(이하 주민센터)에 따르면 주민센터 측은 최근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30곳에 어린이들의 얼굴과 ‘잠깐! 우리가 보고 배워도 될까요?’라는 문구가 담긴 가로 2m·세로 1m의 플래카드(사진)를 내걸었다.

플래카드가 내걸린 지점들은 주민센터 측의 수시 단속에도 불구하고 고상습적으로 생활 쓰레기 불법투



기가 이뤄지는 곳이다. 몇몇 주민들은 심지어 투기장소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피해 교묘히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일쑤다.

이처럼 쓰레기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자 주민센터 측이 내놓은 방법은 어린 아이들이 보내는 감시의 시선, 갖은 방법을 동원해도 주민들이

쓰레기를 몰래 버리고 가는 사례가 잇따르자 어린이들이 이를 지켜보는 듯한 사진이 담긴 플래카드를 내건 것이다.

우산동 주민 김모(52)씨는 “어린이들이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들어간 플래카드가 동네 곳곳에 걸려 있어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측 관계자는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해봤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계속돼 고민 끝에 생각해 낸 방법”이라며 “불법투기가 조금은 줄어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수학미, 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 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마이민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